

1. 특별 금융대응반의 역할은?

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(합수본)와 긴밀히 협의하면서,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·총괄

- ① 非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점검
- ②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·집행·점검
- ③ 非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검토
- ④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당국 공유
- ⑤ 불법대출의심·자진신고센터 운영 등

2. 특별 금융대응반 구성은?

☐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,

- 금융위원회, 금융정보분석원,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, 신용정보원
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명으로 구성

*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사정을 감안하여, 현 업무와 병행하여 금융대응반 업무 수행

☐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로 전문인력 협조·보강 방안을 검토

3. 현장검사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사하는가?

- ☐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(농지)담보대출을 중심으로 ①대출모집 경로, ②대출심사, ③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
 - * ①대출모집인 등록·관리,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, ②채무상환능력, 담보물 평가, 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등, ③자금의 용도와 유용, 채권보전 조치 등
- 점검결과, 금융회사의 위법·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,
-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
- ☐ 아울러 점검결과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예정

4. 개별 공직자 투기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사를 하는가?

- ☐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·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음
- 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, 토지(농지)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·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
- 금융회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·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,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계획

5. 추가 현장검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?

- ☐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복시홍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중(3.18~)임
 - 불법대출 제보,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*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·조사할 예정
- * 점검대상은 합수본의 검사 요청, 「불법대출 신고센터」에 접수된 불법대출 의심 건,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등임
- ☐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검사착수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개하기 곤란

6. 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내용과 발표시기는?

- ☐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임
 -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「가계 부채 관리방안」에 담을 예정
 - 규제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(농민 등)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
- ☐ 非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은 실태조사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할 예정임